

사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13회 고성명태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축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축제 운영이나 인원 동원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고성군과 명태축제위원회는 방문객수가 전년보다 4만명이나 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끄는 등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축제기간과 장소를 옮긴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주최측의 주장대로 인원 동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 활

성화는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일전에 한번 지적했듯이, 고성 명태축제의 성격은 수성문화제처럼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특정 특산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특산물축제'다.

따라서 엄연한 의미에서 명태축제의

명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뒤야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수는 지난해에 비해 4만명이나 늘어 무려 25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극히 적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 설치된 부스 안에서 명태국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들 부스는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회비마련이나 불이웃돕기를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지역 상가의 경우 거진에서 입주한 부스는 단 한곳도 없었으

며, 간성읍에 소재한 식당 한곳이 입주했을뿐이다. 또 풍물시장은 모두 외지상인들이 입주한 것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축제장에 관람객이 아무리 많이 몰려도 지역 상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거진지역 횡집과 식당은 물론 전통재래시장 상인들까지

한목소리로 축제기간 동안 수익이 평소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으며, 일부는 축제를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축제 주최측은 지역 상인들의 이런 지적을 단순히 '상훈'으로 치부하지 말고,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횡집들을 찾을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성명태축제는 앞으로 계속 '존폐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명태축제는 이제 13회를 치르면서 인원 동원이나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따라서 내년 축제부터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앞서 우선적 어떻게 하면 거진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먼저 연구하고 고민해줄 것을 기대한다.

나의 모든 행위는 토양 물 공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버린 오염물에도 나도 모르고 수십년 병들었고, 앓고 있으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 또다시 나는 어리석고 바보가 되는 영혼(英魂)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물을 살리고 토양을 살려서 맑은 공기로 변하는 일은 곧 나의 생명과도 통하기도 하다. 따라서 먹는 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일 몇 가지를 준수하기로 한다. 양치물은 컵으로 받아쓰는 일로서 물 낭비를 하지말자는 것. 주방에선 허드렛물은 청소용이나 화단 세차용등으로 다시 쓰고, 쌀뜨물은 설거지한 후 거름으로 만들고 또는 시금치 야채를 대친 물도 훌륭한 천연세제가 된다. 그리고 그물을 화초에도 주는 일이다.

배수구 거름망엔 현 스타킹을 씌워서 개수의 잔 찌꺼기도 개수물 오염도를 줄이고, 싱크대위엔 음식찌꺼기를 걸러내는 소쿠리를, 그릇은 설거지 전 고무주걱으로 닦아야한다는 방법이 있다. 찌꺼류는 꼭 먹은 만큼만 조리하여 남김이 없어야한다는 것. 실례로 된장국 1리터를 정화하려면 맑은 물 7t이 필요하고 따로 건져내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디스포저는 떼어 내어야 하고, 폐식용유는 부엌휴지로 닦아내고, 이 음식물 중 최대오염물질로 BOD 100만 ppm인데 세제사용량도 줄이게 된다는 것.

이웃끼리 폐식용유모아 재생비누 만들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우리는 지혜로운 환경침범의 실제

기와 천연제재 만들어 쓰는 것을 생활화하며, 술을 버리지 않는 습관이 절대 필요하다. 소주 한잔(20cc)이 1t의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 술잔을 비우고 남으면 보관하거나 마시고 우유 주수 각종 드링크제 등 남은 것을 버리면 오염원이 된다(술을 소나무에 주면 고사된 사례).

계획된 식단으로 주범인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일을 습관화하고, 세제사용 표백제 사용을 줄이고 빗물 받아쓰기를 일상생활화 한다(남해 어느 섬 마을들처럼). 세제를 사용할 때 큰 세탁기도 측정 한 숟갈(45g)로 해결하고 세제 넣기 전에 애벌빨래로 세제를 아껴 써야 한다.

변기세척제와 표백제를 사용하여 물속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성 화학물질이며, 변기를 뚫을 땀 뜨거운 물과 소다 반 컵으로, 베이킹 소다나 붕산을 술에 묻혀 세제로 사용한다는 것. 변기통 물에 벽돌1장 넣어 필요량 10리터 전 국민 6리터를 절수한다

면 1일 61만 리터가 절수되고 단독주택은 빗물 받아 허드렛물로 대용한다면 물 오염예방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편 소 돼지분뇨 축산폐기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해법이 충남당진에 있는데, 우리고성도 소 돼지분뇨 등 축산폐기물에 기존시설 더하여 인분 계분 기타분뇨 정화까지 종합처리 하여, 퇴비·액 비료·청정정화의 순환작용을 통하여 상쾌한 공기와 수질 개선해서 문전옥답으로 되돌아오는 최대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맑은 물 깨끗한 토양 신선한 공기 쾌적한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는 어우러져야 잘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무지를 벗어나야 하고 나를 아끼듯이 다른 사람도 아끼며 자연환경보전 일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즉 '자연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사람의 질서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라면 '자연과 사람 간에 친화적 습관화 생활화를 최우선하여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자연환경의 질서는 모든 삼라만상의 본래상태, 그 조화 유형적 현상, 외계의 현상 자연물과 자연력인데 이에 역행하는 인간의 행위 즉 자연의 질서를 유형무형형태로써 훼손 파괴하는 즉 자연을 거슬리는 인간의 행위이다. 인간의 질서는 삶의 질서인데 자연에 대한 공존이익을 위하여 빛어진 투쟁과 화해와 경쟁과 화친 전쟁과 평화만 인간의 자연친화적 자연보호로서 즉 자연역탈 아니하는 생명은 자연친화적 공동운명을 함께하여 영원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침범은 꿈속에 있고 불침번은 졸고 척후병은 휴면하고 있는 상태이며, 감독자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즉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멀어진 감이 든다는 것이다. 인류환경 700여년 침탈의 소리(영, Edward I 1272년~현재까지)는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더니 이제 기후이변(물 폭탄 폭설 강풍 폭염 기타)으로 지구의 생명체 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되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공기 물 토양을 살리며 생태계의 살려야겠다는 것이다. 깨어나 다시 생각하여 에너지를 아껴 쓰고 소비품을 재활용 하여 다시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고쳐 써서 소비절제를 다하여 쾌적한 환경보전 유지의 지혜는 곧 삶의 길이다.

◇편집국에서

지난 3일 거진읍 송강리 주민들이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송강포대' 앞에서 트랙터를 동원한 채 5시간에 걸친 농성을 벌였다. 그동안 송강포대와 비교적 유대관계가 좋았던 주민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주둔지 사격 훈련을 막기 위해서였다.

접경지역이어서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별도의 훈련장이 아닌 마을과 인접한 주둔지에서 할 경우 소음과 진동에 의한 고통과 가족 피해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부대는 주민들이 분명한 의사를 밝힌만큼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